

K리그 개막... 새 감독·새팀 광주FC, 새바람 일으킨다

내일 전북현대·FC서울 공식 개막전
광주, 28일 수원 원정 시즌 첫 경기
김호영 감독 데뷔전 관심 집중
여름·윌리안 등 주전 대거 이적
젊은피·베테랑 영입 '조화 주목'
전남, 내일 아산전...승격 도전 시작

광주FC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다.

김호영 감독 체제로 새로 팀을 꾸린 광주FC가 28일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2021 K리그 1라운드 개막전을 치른다.

적지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된 광주의 2021시즌은 '변화'로 표현할 수 있다.

김호영 감독이 고향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새로운 체제가 꾸려졌다.

선수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좋은 활약을 선보였던 여름, 윌리안, 아술마토프와 함께 임민혁, 홍준호 등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나면서 새 얼굴들이 많이 채워졌다.

광주는 장동찬·엄지성·신승훈·주영재 등 급고 출신의 우선지명 선수들로 새 피를 수혈했고, 테크니션 미드필더 김종우, 투지 넘치는 수비수 박준강, 아시아를 넘나든 김봉진 등 공수에 걸쳐 수준급 선수 영입에 성공했다.

서울에서 건너온 김원식은 신임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반가운 복귀도 있었다. 광주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주축 선수로 성장했던 이한샘, 윤보상, 이찬동, 송승민이 다시 노란 유니폼을 입었다.

'무한 경쟁'을 예고했던 김호영 감독은 역동적



광주FC 선수들이 28일 수원삼성과의 인방으로 가서 2021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사진은 광주축구센터에서 러닝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인 축구를 완성하기 위해 조직력에 우선 힘을 쏟았다.

새 멤버들이 환상적인 호흡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팀워크를 강조한 김호영 감독은 공격 전술에도 공을 들였다.

또 견고한 수비라인을 구축하며 승점 지키기에 나섰다.

광주는 지난 시즌 '파이널 A' 진입에 성공하면서 창단 이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2부리그에서 돌아온 승격팀이었지만 '전통의 강호'들에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광주는 그 기세를 이어 K리그1의 '복병'으로서의 활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지난 시즌 3연승의 시작점이었던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겠다는 각오다.

김호영 감독은 "시즌 전 강등 후보로 거론된 것이 오히려 선수단에 자극제가 돼 하나로 뭉뚱

치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것은 경기장에서 증명하겠다. 상대가 누구든 물러서지 않는 광주만의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K리그2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은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승격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전남은 27일 오후 4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충남 아산FC와 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지난 시즌 '짱물수비'를 앞세워 8승 14

무 5패를 기록하며, '지지 않는 승부'는 펼치지만 결정적 한방이 부족했다.

전남은 10골을 우선 목표로 내세운 '광양루니' 이종호를 주장으로 앞세워 승격을 향한 뜨거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21시즌 K리그2 대장정은 27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공식 개막전과 함께 막을 올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축구인생 걸고 결백"

초등시절 성폭력 의혹에 "가족 위해 법적 대응"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32·FC서울)이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대해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기성용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라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24일 박지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뛰며 있는 B씨는 현재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보도가 나오자 가해자 A선수로 기성용이 지목됐고, 기성용의 매니저먼트사인 C2글로벌은 곧바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기성용도 SNS를 통해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긴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축구 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깨달았습니다.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라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조선이공대 야구팀 창단, 대학야구에 도전장



초대 사령탑에 김부관 감독

조선이공대 야구부가 25일 공식 창단식을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조선이공대는 25일 오후 대학강당에서 조순계 총장, 김준성 영광군수, 광주광역시체육회·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대학야구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열었다.

야구 불모지 화순에서 KIA 김선빈 두산 홍건희 등을 키운 김부관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해 권창선·윤도경·김민선 코치로 코치진이 꾸려졌다.

또 광주일고 출신의 내야수 진다운을 주장으로

해 2021년 신입생 21명으로 팀이 구성됐다.

광주지역에서는 17년 만에 창단한 세 번째 대학팀이다. 지난 2004년 송원대와 동강대가 나란히 야구팀을 만들었고, 조선이공대가 광주 야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 우수 선수의 외부 유출을 막고, 대학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야구부 창단을 논의했던 조선이공대는 지난해 4월 본격적인 창단 준비를 시작했다.

이어 5월 대대산단에 현대식 야구장을 갖춘 영광군과 야구경기장, 선수단 숙소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캠프 제구왕, 1위 정해영·공동 2위 멧덴·이민우

윌리엄스 감독, 마운드 옥석가리기
실 스트라이크존 놓고 불펜 피칭
정, 122개 던져 스트라이크 68%
오늘부터 합평서 라이브 피칭

예열 끝낸 KIA 타이거즈가 '라이브 피칭'으로 경쟁 분위기를 달군다.

KIA가 26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캠프 첫 라이브 피칭을 진행한다.

브룩스와 함께 김현수·김현준·김재열·정해영 등 5명의 투수가 합평형 베스에 오른다. 야수에서는 최형우·나지완·터커·김선빈과 김민식·백용환·이정훈·백용환 등 포수 전원이 합평으로 간다.

윌리엄스 감독은 합평에서 라이브 피칭 일정을 진행하며 실전 준비를 하고, 옥석 가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라이브 피칭을 위한 준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무기' 박건우가 수비 훈련 도중 베이스를 잘못 밟아 재활조가 됐지만, 지난 18일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외야수 이진영이 25일 캠프에 복귀하는 등 큰 부상 변수는 없다.

무엇보다 윌리엄스 감독이 삼할을 기용한 마운드 구성 작업도 예정대로 잘 이뤄지고 있다.

KIA는 25일 신인 이승재를 끝으로 단계별 불펜 피칭을 마무리했다.

30구·8분을 기준으로 첫 피칭에 나선 첫 투수들은 점점 단계를 높여 60구·12분을 기준으로 4번째 피칭을 진행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승재는 "페이스 올려서 던졌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된 것 같아서 좋다. 정명원 코치님께서 던질 때 조심하게 놓는다고 자신 있게 하라고 하셨다. 자신감도 생겼다"며 "내 최대 약점이 제구가 안 좋은 것인데, 스트라이크존 그려진 것을 보고 하나가 집중도 잘되고 좋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승재는 '신인답게' 남은 경쟁에 임하겠다는 마음이다.

이승재는 "열심히 즐기자, 많이 배우자는 생각으로 하나가 캠프가 재미있다. 형들도 잘 해준다"며 "빠른 직구가 장점이다. 신인답게 기죽지 않고 패기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프로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정해영에게도 성



정해영



멧덴

공적인 불펜 피칭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캠프를 시작하면서 투수들에게 조구 스트라이크를 강조했다. 포수 앞에 실로 스트라이크존을 만들고, 이를 세심하게 지켜보기도 했다.

정해영은 4차례 피칭에서 180개의 공을 던졌고, 이 중 122개를 스트라이크존으로 집어넣었다. 가장 높은 68%의 스트라이크 비율을 보이며 '제구왕'이 됐다.

이어 멧덴과 이민우와 63%, 브룩스가 61%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구사했다.

정해영은 "(제구가) 감독님의 주문이어서 더 집중해서 했다. 마지막에는 직구 힘이 떨어져서 직구

위주로 피칭을 했다"며 "작년 캠프에 비해 올해가 더 좋고 이걸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냈지만, 정해영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코너워크'를 다음 속제로 언급했다.

정해영은 "좋았을 때는 몸쪽, 바깥쪽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가져갔는데, 안 좋았을 때는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도 가운데 몰렸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다"며 "라이브 피칭은 나도 연습하는 것이고 타자 선배님들도 연습하는 것이니까 포수 선배님 보면서 내 공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